

『2025~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』 발간

한국고용정보원, 경영·사무·금융·보험직 등 4개 직군에 걸쳐 총 205개 직업에 대한 향후 10년간 일자리 전망 및 요인 분석

한국고용정보원(원장 이창수)은 『2025~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』을 발간했다고 밝혔다.

한국고용정보원은 AI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 일자리 변화를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년, 근로자 등의 직업 준비 및 이·전직 활동을 돕고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지원해 왔다.

이번에 발간한 『2025~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』은 3개년('25~'27년) 사업 중 첫째 사업으로서, 경영·사무·금융·보험직, 보건·의료직, 예술·디자인·방송·스포츠직, 미용·여행·숙박·음식·경비·청소직 등 4개 직군에 걸쳐 총 205개 직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('25~'35년) 일자리 증감을 전망하였다. 그리고 직업별 일자리 전망 결과를 설명하는 산업·기술·사회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182개 직업('관리자' 직종 23개는 관련 직업으로 연계)에 대한 일자리 전망 결과를 종합하면, '증가' 9개(4.9%), '다소 증가' 47개(25.8%), '현 상태 유지' 114개(62.6%), '다소 감소' 12개(6.6%), '감소' 0개(0%)로 나타났다.

키워드 분석을 통해 일자리 증감 트렌드를 도출한 결과, 증가 요인으로는 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·돌봄·생활지원 수요의 확대, ② 치료 중심에서 건강 예방·재활·정신건강 중심의 사전관리로 패러다임 전환, ③ 디지털 전환에 따른 데이터 기반 직무 확대, ④ 문화·콘텐츠 소비 다변화와 K-컬처의 글로벌

확장, ⑤ 외국인 증가·관광 활성화, 다국적 소비자 확대, ⑥ ESG경영·친환경·기후 리스크 대응의 제도화 등으로 나타났다.

반면 감소 요인은 ① AI·자동화에 의한 반복·규칙적 업무의 대체 가속, ② 생성형 AI로 인한 창작·디자인 직무의 영역 축소, ③ 저출산·학령인구 감소로 아동·청소년 관련 직무의 수요 축소, ④ 비대면·셀프 서비스 확산으로 현장 기반接客 인력 축소, ⑤ 가계소비 위축, 비용 절감, 영업구조 재편에 따른 고용 축소 등으로 나타났다.

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“이 직업정보서가 청소년과 청년, 중장년 등은 물론 직업교육·훈련 관계자, 진로·취업상담 전문가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”이라고 말하며, “AI 전환 등 급변하는 직업세계 속에서 합리적인 진로 선택과 직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

『2025~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』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(www.keis.or.kr)의 [발간자료] → [직업진로정보서]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. 더불어 『2025~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』 사업을 수행한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 사업보고서는 [발간자료] → [직업진로정보서]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붙임 1. 『2025~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』 표지

2. 일자리 변화 트렌드

담당 부서	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	책임자	연구위원 김동규 (043-870-8332)
		담당자	연구원



붙임1. 『2025~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』 표지

임금직업포털 www.wagework.go.kr

기본사업 2025-30

2025~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



경영·사무·금융·보험직
보건·의료직
예술·디자인·방송·스포츠직
미용·여행·숙박·음식·경비·청소직



붙임2. 일자리 변화 트렌드

일자리 증가 주요 트렌드

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·돌봄·생활지원 수요의 확대

- 평균 수명 연장과 만성질환 증가로 장기적 의료 수요 증가
- 노년층의 자택 기반 케어·방문형 의료·재활 서비스 강화
- 돌봄 서비스가 신체 지원 중심 → 정서·고립감 해소 영역까지 확장
- 요양·케어 산업이 민간·지역 커뮤니티 기반으로 다변화
- 1인 가구 증가로 생활 안전·응급 대응 서비스 수요 확대

대표 직업 예시 전문의사, 한의사, 치과 의사, 간호사, 사회복지사, 생활지도원 등

② 치료 중심에서 건강 예방·재활·정신건강 중심의 사전관리로 패러다임 전환

- 건강관리 소비가 치료 목적에서 삶의 질 개선 영역으로 확장
- 우울·불안·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상승
- 장애·사고·노쇠 증가로 재활·작업능력 회복 산업 강화
- 디지털 모니터링·헬스데이터 융합 서비스 성장

대표 직업 예시 작업치료사, 물리치료사, 정신건강 관련 의료 직무

③ 디지털 전환에 따른 데이터 기반 직무 확대

- 기업 운영 의사결정이 경험 중심 → 데이터 기반으로 이동
- ERP·CRM·HRM·성과관리 시스템 확산으로 사무직의 역할이 분석·기획 중심으로 재편
- 금융 산업은 대면 창구 중심 → 모바일·비대면 자산관리로 이동
- 디지털 전환이 조직변화·프로세스 혁신 직무 수요를 동반
- 고객 데이터 기반 개인화·마케팅 자동화 기능 강화

대표 직업 예시 데이터 분석 관련 사무직, 디지털금융 및 자산관리 사무직, 경영기획·마케팅기획 사무원 등

④ 문화·콘텐츠 소비 다변화와 K-컬처의 글로벌 확장

- 여가 소비가 물리적 활동에서 경험·콘텐츠 소비 중심으로 변화
- 창작 산업이 전문가 중심에서 개인·크리에이터 참여형 생태계로 확장
- K-콘텐츠가 해외 스트리밍·SNS 확산 기반으로 지속 성장
- 공연·예술·디자인이 관광·브랜딩 산업과 결합
- 스포츠·레저 활동이 건강·체력·정서 관리 기능과 결합

대표 직업 예시

만화가·웹툰작가, 공연·영화·음반 기획자, 영상그래픽디자이너, 스포츠지도·레저콘텐츠 관련 직종

⑤ 외국인 증가·관광 활성화, 다국적 소비자 확대

- 외국인 거주·취업·유학생 증가로 다언어 서비스 수요 확대
- K-푸드·K-컬처 소비가 관광과 결합한 체류형 소비로 확장
- 숙박·여행·음식 서비스가 프리미엄화·전문화
- 지역관광이 로컬 경험·스토리텔링 기반으로 재정의

대표 직업 예시

여행상품 개발자,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, 외식 셰프 등

⑥ ESG경영·친환경·기후 리스크 대응의 제도화

- 기업의 공시·평가·감독체계 강화
- 친환경 조달·탄소감축 보고 등 실행 기반 직무 증가
- 지속가능 경영이 금융·투자·평가 기준과 결합

대표 직업 예시

ESG 관련 사무직, 리스크관리 및 규제 대응 사무직

일자리 감소 주요 트렌드

① AI·자동화에 의한 반복·규칙적 업무의 대체 가속

- 문서 작성·요약·정리·전표·입력 등 규칙 기반 과업 자동화
- 고객 응대가 콜센터 → 챗봇·AI 상담으로 이동
- 디자인·영상·음악 등에서 초안·패턴·샘플 생성 자동화
- 학습곡선이 낮은 직무일수록 대체 속도 빨라짐

대표 직업 예시

출납창구 사무원, 증권 사무원, 은행 사무원, 단순 사무원(회계·경리 입력 중심 직무, 단순 그래픽·편집 보조 직무 등)

② 생성형 AI로 인한 창작·디자인 직무의 저부가가치 영역 축소

- 이미지·배경·패턴·더빙·음성 재현 자동화
- 작품 제작보다 기획·연출·콘셉트 개발 역량 중요성 증가
- 생성형 AI의 활용성 증가로 “숙련이 고용 안정을 담보”하는 고용구조 약화 가능성 증가

대표 직업 예시 단순 디자인·편집 보조 직무

③ 저출산·학령인구 감소로 아동·청소년 관련 직무의 수요 축소

- 보육·초중고·아동 대상 프로그램 축소
- 교육 서비스가 성인·전환교육·직업훈련 중심으로 이동

대표 직업 예시 유치원교사, 초등학교교사, 중·고등학교교사 등

④ 비대면·셀프 서비스 확산으로 현장 기반接客 인력 축소

- 키오스크·모바일 주문·무인화 시스템 확산
- 매장 방문이 체험형 소비가 아닌 경우 감소
- 단순 응대·안내·접수 역할 수요 하락
- 일부 서비스업이 플랫폼·예약·구독형 모델로 전환

대표 직업 예시 단순 매장 판매원, 현장 안내·접수 인력 등

⑤ 가계소비 위축, 비용 절감, 영업구조 재편에 따른 고용 축소

- 가계 소비 위축이 외식·소매·서비스업 인력 수요 감소로 연결
- 금리·물가 영향으로 투자·영업·판매직 조정
- 기업이 정규직 채용에서 외주·계약직·성과형 모델로 전환
- 리테일·오프라인 기반 산업이 구조적으로 축소

대표 직업 예시 금융·보험 창구 사무원, 판매·유통 관련 종사자, 외식 및 소비 민감 업종 종사자 등